



# 오늘의 세계를 만들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왕국·제국들

## 지도에서 사라진 나라들

도현신 지음

류큐 왕국, 시크 왕국, 마라타 제국, 캄파 왕국, 크메르 제국, 다호메이 왕국... 이들 나라는 역사 속에서 존재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렇다면 알함브라 궁전을 세운 나라는 어디인가? 앙코르와트를 세운 나라는 어디인가? 이 물음에 쉽게 답을 하기는 쉽지 않다. 웬만한 역사에 대한 상식이 없다면 알기 어렵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는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했다 사라진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멸한 나라들의 역사를 조명하는 책이 발견됐다. '원굴과 이순신', '전쟁이 밝힌 과학기술의 역사', '실업이 바꾼 세계사'의 저자 도현신이 펴낸 '지도에서 사라진 나라들'이 바로 그 책. 저자는 사라진 나라를 알아보는 것은 단순한 나라의 시작과 끝을 좇는 작업이 아니라고 본다. 오늘의 세계의 근원을 찾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국제 관계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라고 본다.

많은 이들의 여행지로 유명한 스페인 알함브라 궁전에는 이슬람 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다. 13세기 기독교 세력의 힘이 막강한 가운데 남쪽 도시 그라나다에 이슬람교도인 무함마드 1세가 세운 그라나다왕국이 들어선다. 왕국이 자리한 곳은 높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 타 세력이 침범하기가



어려웠다. 알함브라 궁전 내부는 기하학적인 이슬람 특유 아라베스크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더욱 강력해진 기독교 세력에 의해 그라나다 왕국은 멸망에 이른다. 이슬람세력의 스페인 지배는 막을 내리고, 지금의 알함브라 궁전은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소개된다. 기독교 문화권에 남아 있는 이슬람 문화의 흔적으로 더할 나위 없는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는 동남아를 주름잡았던 크메르 제국의 유산이다. 지금의 캄보디아는 빈국이지만 한때는 찬란한 제국을 건설했던 때가 있었다. 11세기 크메르는 현재 캄보디아보다 7배나 넓은 영토를 거느렸고 동남아 최대 강국이었다. 중국의 역사서 '송사 집략전'에는 크메르 제국에 대해 "영토가 7000리이며 전투에 사



찬란했던 앙코르와트의 나라 크메르 제국. 11세기 크메르는 현재 캄보디아보다 7배나 넓은 영토를 거느린 동남아 최강국이었다. <서해문집 제국>

용하는 코끼리가 20만 마리가 된다"는 짧은 인상 깊은 표현이 기록돼 있다.

최근 들어 미얀마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을 탄압한다는 내용이 이들이 미얀마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작금의 미얀마 역사는 동남아시아의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미얀마 콘바웅 왕조와 연계돼 있다. 19세기 초 영국과의 잇따른 전쟁에서 콘바웅 왕조가 패배한다. 영국은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미얀마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방글라데시에 살던 로힝야족을 이주시킨다. 그로 인해 영국은 미얀

마인들로 하여금 자국에 대한 증오심을 로힝야족에게 쏟리게 했던 것이다.

아울러 마라타 제국은 인도를 통치한 이슬람 왕조 무굴제국에 맞서 힌두교를 신봉한 국가다. 이들의 역사는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로 분리된 3국의 근현대사로 나아가는 통로 역할을 했다.

저자는 이처럼 서구 문명이 현재의 세계사에 끼친 영향과 함께 그동안 세계사에서 접하기 힘든 나라들의 역사를 조명한다. 책에는 실감 나는 100컷의 컬러 이미지도 수록돼 있어 읽는 즐거움 못지않게 보는 즐거움도 만만치 않다.

<서해문집·1만5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증오하는 인간의 탄생 = 피부색과 성별, 나이와 가치관. 온갖 빌미를 만들어 자신과 타인을 구분짓고 차별하고, 나아가 격렬히 '증오'하는 행위는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뿌리깊은 증오의 근원을 찾기 위해 저자는 증오 심리를 논리적으로 포착하고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분석해 그 밑바닥에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횡행한 '인종주의'가 있음을 증명한다.

<역사비평사·2만5000원>

▲논쟁으로 읽는 한국 현대사 = 광복과 분단, 군사독재와 민주화운동, 신자유주의와 시민운동. 역사의 분수령마다 우리는 '논쟁'을 벌였고, 이어서 비뚤한 선택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왔다. 사회학자 김호기 교수와 역사학자 박태근 교수가 1945년부터 광복, 박정희 시대, 민주화시대와 외환위기를 지나 현대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을 들춰 한국 현대사를 뒤늦게 40가지 논쟁들을 조명하고 평가했다.

<메디치·1만6000원>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 대화와 타협으로 일찍 끝났던 것으로 예상됐던 트럼프와 시진핑의 관계가 장기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미중전쟁 대응 방안 등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역전 시나리오를 각급의 정세와 대비해 파헤친 흥미로운 저작이다.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의 저자 이화여대 최병일 교수의 분석으로 우리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한다. <책들의정원·1만6000원>

▲우주적인 안녕=지난 2002년 제1회 문화과학회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한 하재연 시인이 7년만에 출간한 세번째 시집. 출간까지 할 때는 어떤 '당위'가 필요하다는 말로 망설였던 저자가 오랜 시간 다듬고 버려낸 결과물로, 선행적 시간 흐름을 외면하고 프랙탈이나 다면체와 같이 시공간을 표현하는 작가 특유의 화법으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문학과지성사·9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한국 스포츠 최초의 영웅들 = 190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와 전쟁, 가난 등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었던 이 시기에 사람들에게 힘과 기쁨, 희망과 용기를 줬던 이들은 다름 아닌 스포츠 선수들이었다. 자전거왕 엄복동, 마라토너 손기정, 흥륜왕 이영민 등 올림픽이나 국제 경기에서 국가 대표로서 활약해 짜릿한 감동을 전해준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고 그 시절의 감동을 다시 느껴본다. <사계절·1만3000원>

▲빵 더하기 빵 더하기 뽕뽕뽕! = 매일 빵 굽는 냄새로 가득한 뽕뽕마을. 어느 날 태풍이 불어와 마을이 큰 피해를 입고, 밀가루를 배달해 주던 동동 아저씨도 크게 다친다. 동동 아저씨의 병문안을 가기로 한 성심씨와 친구들은 각자의 빵을 합쳐 새로운 빵을 만들기로 한다. 지난 2013년 '바우덕이'로 한국어 아동문학상을 받은 임정진 동화작가가 쓰고 신민재 화가가 그렸다. <이유출판·1만2000원>

▲매미 = 회색 빌딩에서 인간과 함께 일하는 매미는 17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실수 한번 없이 일했지만, 노력을 인정받기는커녕 차별과 괴롭힘만 당한다. 매미의 생애와 유사한 전개에 차별당하는 소수자들의 삶을 녹여내 강렬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다. 2011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기념상을 수상한 손텐이 쓰고 그렸으며, 김경연이 옮겼다. <폴빛·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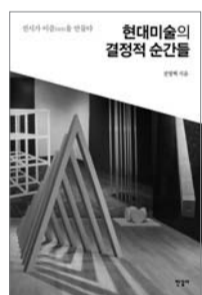
# 입체주의·표현주의 ... 미술사를 만든 파격의 전시들

## 현대미술의 결정적 순간들

전영백 지음

1905년 파리 '살롱 도톤'전에 앙리 마티스의 '모자를 쓴 여인'이 내걸렸다. 자신의 아내를 그린 이 작품은 진홍색, 적황색, 보라색, 초록색 등 과감한 색감을 드러낸 초상화였다.

그림을 본 관람객들은 거친 기법의 미개한 작품이라고 평했지만 이 작품이 걸린 전시는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미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한다. 서양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새로운 유파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바로 '아수파'다. 아수파는 이름 자체를 전시에서 얻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강렬한 색채와 파격적인 표현으로 무장한 작가들을 처음 접한 평론가들이 "아수들"이라고 평한 데서 유래했다. 미술사학연구회장을 지낸 전영백 홍익대예술학교수가 펴낸 '현대 미술의 결정적 순간들-전시가 이즘(ism)을 만든다'는 20세기 미술사를 '전시' 중심으로 다룬 책이다. 저자는 "미술의 역사에 등단하는 관문이자, 희비극이 엮이는 전쟁터이고, 미술계의 네트워킹이 형성되는 플랫폼"인 '전시'라는 틀을 통해 20세기 미술사를 흥미롭게 풀어

내고 있다.

책에는 20세기 현대미술의 중요한 분기마다 결정적 역할을 한 미술사의 중요한 '전시'와 작가-비평가-아트 딜러 등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겨 있다.

저자는 "미술의 역사는 이전의 코드를 깨고 새롭게 행동한 자들과 그 예술적 가치를 알아본 소수에 의해 쓰였"고 "전시는 미술의 역사에서 새로운 창작을 선보이고 집단적인 움직임을 형성하고 공론을 이끈 장(場)"이라고 말한다.

새로운 이즘을 만들어내는 전시는 대개 기존의 틀을 깬 도발적 전시일 경우가 많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변기'인 마르셀 뒤샹의 '샘'이 전시된 1917년 뉴욕 '양데팡당' 전이나 살바도르 달리의 설치

작품 '비 오는 택시'가 출품된 1938년 '초현실주의 국제전'은 유명 사조인 다다와 초현실주의를 각인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책에서는 그밖에 입체주의, 표현주의, 유럽 추상주의, 뉴욕스쿨과 추상표현주의, 팝아트, 누보 레알리즘, 미니멀리즘, 개념미술 등 다채로운 사조를 대표하는 전시들도 만날 수 있다.

300여장에 달하는 도판 자료가 눈에 띄며 작품 뿐 아니라 당시 열렸던 전시장 사진을 수록해 생생함을 전한다. 또 의미있는 작품과 전시는 본문 중간에 따로 페이지를 구성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길사·3만2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